

## 학회소식

### 〈제 2회 산부인과 신의료기술 및 의료수가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제 2회 산부인과 신의료기술 및 의료수가개발을 위한 심포지움〉을 7월 8일(수) 서울대학교병원 지하 C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움은 의료시장개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인구노령화 및 저출산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산부인과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발표연제는 총 7개로 '신경보존 광범위 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제술', '자궁내막증수술 수가 세분화', '자궁근종절제술 수가 세분화', '골반내용물 유착박리술 부수술 인정', '자궁경부통증 진찰법', '마취과 의사 초빙료 현실화', '질강치치료'였다. 본 학회 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심평원 담당자 및 개원가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와의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긍정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

#### 제 2회 산부인과 신의료기술 및 의료수가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프로그램)

일시: 2009년 7월 8일(수) 오후 6:3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C강당

인사말 강순범(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Part 1. 좌장: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한림의대)

7:00~7:15 연자: 유은희(경희의대)  
신경보존 광범위자궁적출 및 골반림프절제술  
자궁내막증수술 수가 세분화

7:15~7:30 연자: 김계현(성균관의대)  
자궁근종절제술 수가 세분화  
골반내용물 유착박리술 부수술 인정

7:30~7:40 연자: 김태윤(강서미즈메디병원)  
자궁경부통증 진찰법  
마취과 의사 초빙료 현실화

7:40~7:50 연자: 조종남(조윤희산부인과)  
질강치치료

7:50~8:00 〈휴식〉

Part 2.

8:00 ~ 8:50 토론 및 폐회



### 〈NST 관련 임의비급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성료

지난 6월 12일(금) 〈NST 관련 임의비급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개최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의협 동아홀에서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 및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해 300명 이상이 참석해 3시간 가량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 첫 순서에서는 홍순기 원장(청담마리산부인과)이 분만전문병원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법적 해석으로 환수가 불가피할지라도 현실을 고려해 시스템적인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학회 보험위원장인 이근영 교수(한림의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 12월 30일 NST와 관련한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에 대해 분만전 감시(나-732)에 포함된다며 반려한 것은 판단 오류라고 지적하였으며 외래에서 하는 NST와 입원했을 때 시행하는 분만전 감시는 명백히 다른 검사이며, 이 두 가지를 같은 행위로 잘못 보고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인사 토론자로 참석한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산부인과의 입장은 잘 이해하고 있으며 NST 급여 고시가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제혁 보건사무관이 참석하여 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등으로 판단할 때 임의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은 경우 심평원에 민원이 들어와 환급 결정이 나오면 환급하는 게 옳으며 이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검사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복지부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와 국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위해 임의비급여 개선 방안을 모색중임을 밝혔다.

## 〈산부인과 의사의 유방질환 연수를 위한 장학제도〉

### 선발대상 자격 공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유방질환에 관심이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추천받아 해외에 파견. 유방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익히고 임상술기를 교육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산부인과 의사의 유방질환 연수를 위한 장학제도〉를 실시하였다. 제 1회 장학생으로 김민정교수(가톨릭의대)가 선정되어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받으며, 2009년도 10월부터 독일 Erlangen 대학교에서 1년동안 연수받을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유방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특히 Erlangen 대학 유방센터는 독일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방센터 중 하나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차로 〈산부인과 의사의 유방질환 연수를 위한 장학제도〉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2009년 8월 31일이다.

(자세한 선발대상 자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www.ksog.org](http://www.ksog.org))

## 보험소식

### 1. NST 소식

6월 25일(목) 서울팔래스호텔에서 NST 비상대책 보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NST는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이며, 고시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에도 산전진찰 비급여대상 건강검진의 범주이므로 본인부담이 타당하고 따라서 검사비용이 환수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NST관련 고시문안 중 일부 개정을 논의하였는데 고시에서 임신 주수를 제한함에 따라 임신 28주 이전에는 고위험 임신부라 하더라도 태아안녕 평가를 할 수 없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제왕절개 가감지급 평가사업관련 간담회〉 개최

6월 17일(수) 〈제왕절개 가감지급 평가사업관련 간담회〉가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회의에 이어 개최된 대책회의로 학회 관계자 및 서울, 경북, 부산지역 대학병원 산부인과 주임교수들이 참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인센티브팀 관계자들도 동석하여 위험도 보정인자 타당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서경 교수(의학통계학 전공)가 참석하여 학회측 의견을 발표하였다.

## 행사소식

### 미리보기

####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 일시: 2009년 9월 24일(목)
-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홍은동)

#### 〈제 9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09년 9월 25일(금)~26일(토)
-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홍은동)



#### 〈The 11th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일시: 일시:2009년 9월 25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2층 플라밍고룸 (홍은동)

#### 〈XIX FIGO World Congress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세계최대 규모의 산부인과 학술대회인 FIGO World Congress가 2009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다. 120개국 6,000여명이 참석예정인 이 행사는 산과와 부인과를 총망라하는 최신지견은 물론 여성건강을 주제로 권위있는 연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일시: 2009년 10월 4일(일) ~9일(금)
- 장소: Cape Tow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Cape Town, South Africa
- 홈페이지: <http://www.figo2009.org.za>

